

## 미리 가본

## 함평의 가을



전남의 고즈넉한 함평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는 나비 축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이 생태축제는 그러나 함평을 '봄에만 찾아가는 관광지'라는 인식을 남겼다. 나비축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때 타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품었기에 가능했다. 사방이 콘크리트에 갇힌 도회지 사람들에게 심신을 달래기에 함평은 더 없이 좋은 사계절 휴양지이다.

## # 함평의 가을축제

나비가 함평의 봄 특산품이라면 가을 특산품은 꽃무릇과 국화이다. 수선화과에 속하는 붉은 꽃무릇은 꽃이 진 뒤에야 잎이 자라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해 '상사화(相思花)'라는 애절한 애정이 붉은 꽃이다. 주로 산기슭이나 사찰 주변에 피어 불교 행화의 방부제로 쓰인다.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일대는 국내 최대 꽃무릇 군락지. 9~10월이면 산자락을 '붉은 웅단'처럼 뒤덮어 한국의 백경 가운데 한곳으로 꼽힌다. 함평군은 9월 21~22일 '제20회 꽃무릇 큰잔치'를 연다.

'봄 나비'의 바통을 이어받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국화대전은 '천억 송이' 국화꽃으로 유명하다. 함평군이 4계절 관광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남다른 스케일로 유료입장임에도 매년 2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 #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 성지

함평에 가면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만날 수 있다. 지난 2009년 중국 현지의 임시정부청사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함평군이 22억 원을 들여 중국 현지 청사를 그대로 복원했다. 복원한 청사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4번째로 마련해 가장 오랜 기간 사용했던 건물이다. 3층 붉은 벽돌 건물 내부에는 김구 선생 집무실, 정부 집무실, 침실과 의자, 책상 등 당시 사용한 소품 전부를 철저히 고증을 통해 재현했다.

함평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시정부청사를 재현한 데는 함평의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 때문이다. 청사를 복원한 자리도 김철 선생의 생가(신광면 함정리)가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함평 일대의 천석꾼이었던 김철 선생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재산을 전부 처분해 독립자금으로 내놓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선생이 내놓은 자금으로 정부 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김철 선생은 김구와 함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하고 임시정부에서 군무장,



함평의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 동상.

조대 재무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선생은 1934년 중국 항저우에서 폐렴으로 48세 나이에 별세했다.

## #백년 전통 한우비빔밥

함평의 독특한 음식문화로 한우육회비빔밥이 유명하다. 밥에 한우 생고기를 저민 육회를 푸짐하게 얹고 데친 야채와 삶은 돼지비계를 곁들여 먹는다. 여기에 소뿔을 우려낸 맑은 선짓국이 따라온다.

함평에만 있는 이 독특한 비빔밥은 100년 전 전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했던 함평 우시장에서 비롯되었다. 함평은 예로부터 이름 높은 한우 명산지. 고유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는 육질이 담백하고 육즙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좋아 2008년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이런 이유로 함평에는 오래전부터 우시장이 형성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을 상대로 마을 사람들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비빔밥을 내다 팔았는데 이때 도축장에서 나온 신선한 소고기를 얹으면서 함평한우육회비빔밥이 생겨났다. 함평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는 당시 우시장에서 육회비빔밥을 팔던 가게 10여 곳이 모여 현재 한우비빔밥 거리로 특화되어 있다.



## 망자가 맺어준 남구와 함평의 자매결연

이익주 전 부구청장 2005년 함평 폭설 지원 도중 순직

함평군 "고인에 감사" 조형물·추모비 세워 매년 추모

함평과 남구의 자매결연에는 '애절한 사연'이 숨어 있다.

이야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간다. 그해 12월 27일 함평에 67년 만에 큰 폭설이 내려 농가들은 깊은 실의에 빠졌다. 이에 부산시 공무원들이 폭설 지원에 나섰다. 이때 남구에서 부구청장(2000년 11월~2002년 2월)을 지낸 바 있는 부산시 이익주 행정관 리국장도 폭설 지원에 나섰다. 그날 밤 10여 명이 모여 현재 한우비빔밥 거리로 특화되어 있다.

함평군은 이듬해 순직한 이 국장을 기리고 영호남의 화합을 바라는 9.5m 높이의 스테인레스 조형물과 추모비를 남구시와 이웃한 국도변의 소공원에 건립했다. 추모비에는 고인의 얼굴과 비문과 경력, 영·호남 시민들의 추모사가 새겨져 있다.

2006년 3월 29일 추모비 제막식 때 하얀 나비 550마리가 하늘을 날며 고인을 추모해 참석한 이들의 눈시울을 젖게 했다. 이후 함평군은 매년 12월 고인을 기리는 추모식



함평군이故 이익주 남구 부구청장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

을 열고 있다. 남구와 함평은 이날 추모비 앞에서 자매결연을 가졌다.

## ■ 함평은 어떤 곳



함평(咸平)의 지명은 조선조 태종 9년(1409년)에 함평현(咸豊縣)과 모평현(牟平縣)이 통합되면서 함평의 '咸'과 모평의 '牟'를 따서 지었다. 면적은 전남의 3.2%로 인구는 3만3400명 정도이다. 깨끗한 청정고을을 알리기 위해 1999년 국내 처음으로 나비 축제를 개최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친환경적 생태관광축제로 발전했다. 남구에서 자동차로 3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 면적 : 392.1km<sup>2</sup>(전남의 3.2%)
- 인구 : 3만3,420명(남 16,642, 여 16,778)
- 행정구역 : 1읍 8면 272개리 496개마을
- 산업구조 : 1차산업 60%, 2차산업 10%, 3차산업 30%
- 특산물 : 함평천지한우, 레드마운틴(북분자주), 아이스홍차, 기능성버섯 등

**간호조무사 국비훈련생모집(주/야, 남/여)**

● 우수훈련기관 고용노동부 간호인정평가 3년 인정

**실업자과정 OK! 재직자과정 OK!**

이제는 장려금 받고 공부하자!

자격증부터 취업까지 "한번에"

**메디칼 간호학원**

서면캠퍼스 ☎819-6601 서면역 주디스타워1층

대연캠퍼스 ☎637-6601 경성대부경역5번출구

**김스골프 특별할인 이벤트!**

■ 연회비 780,000원(월 65,000원)  
■ 6개월 450,000원(월 75,000원)  
■ 3개월 330,000원 >시타 1박스, 연습시간 제한 없음

프로레슨 특가(KPGA 회원)  
3개월 600,000원(회비포함) >10명 선착순

속성반 운영(초보에서 필드까지 1개월 완성)  
600,000원(정규 9홀 그린피 레슨비 1회 포함)

**실의 45타석**

상 담 625-3400 / 010-5920-3152  
김스골프연습장(문화회관 부근 대호 레포즈 맞은편)

사랑스런 아기와 산모를 위한 최고의 선택

**20년 전통,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 부산 최초 산모 발레·요가 교실 운영  
◆ 퍼펙트한 모유수유관리, 호텔식 가족실 운영  
◆ 전문 교육을 이수한 출장 산모도우미 파견

Babycamp 산모도우미 9월 coming soon

☎ 051-623-1241 www.mammycamp.co.kr

**국제·국내 결혼전문회사**

아기는 나라의 보배 출산은 애국이다

진성코리아 고객

궁합, 사주, 택일, 감정 특별 서비스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려면 결혼은 필수!**

결혼 후 아기 탄생은 가정과 나라의 보배!  
30년 교육자가 신생아 500명 탄생 목표로  
16년 전 결혼정보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금 위기탈출은 결혼이 정답이다!**

저출산 탈출 구국의 길에 매니저로 일할 분 모집합니다.  
성인남녀 뜻 있는 분 누구나 연락주세요(초보환영)

대표전화 : 555-1368 연중무휴 상담전화 : 010-4550-3085  
위치 : 지하철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건너편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남부종합피아노사**

조율·윤반·수리·교향·방송

(051) 628-4013  
010-3837-4013

대연4동 유엔사거리 석포농협 옆

대 표(조율사) 조 학 제

**중고피아노 삽니다**

국가공인 조율사 직영점 / 중고피아노 수출업체

James. K. 쉽고 빠르게 누구나 말하는 영어

**모집대상 <주부반>**

○ ABC 초보어머니반 : 영어 읽고 뜻풀이  
○ 초급어머니반 : 생활영어 및 필수여행 영어  
○ 기초가 없어도 OK!

강사 통역 중

★ 개인 및 그룹

위치 : 대연동 대연성당 후문 앞 T. 010-4564-2972